

##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 연구

朴 淳 成

- I. 경제체제와 경제학
- II. 남북한 경제학의 정의
- III. 남북한 경제학의 분류
- IV. 남북한 경제학의 동향
- V. 남북한 경제학의 동질화 가능성

### I. 경제체제와 경제학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경제학은 경제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경제현실은 경제학의 연구대상인 동시에 경제이론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경제현실은 다양한 경제이론을 검증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함으로써 경제이론이 생성·발전·소멸하는 사회적·물적 바탕이 되고, 이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학도 경제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전반적인 틀이 변한다.<sup>1)</sup> 경제현실이 살아있다면, 경제학 역시

1) 경제학의 발전과정을 단선적이고 연속적으로 보는 관점(알프레드 마샬)에서는 다양한 경제이론의 존재라는 것이 경제학의 발전에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발전은 다양한 이론(원리, 이론체계, 연구주제, 분석방법 등)간의 대립과 상호영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한 이론이 지배적 이론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경제학은 경제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 정책에 직접 자신을 투영한다. 경제현실은 단순히 비인격적·초사회적 경제기구 하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제변수들간의 관계에 따라서만 생성·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인간이 만든 사회·경제제도의 작동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경제이론이 인간(개인, 집단, 정치인 등)의 사회활동과 사회제도에 작용하고 의식과 이데올로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면, 경제이론의 총체적 결합체인 경제학은 경제현실이 움직이는 장(제도와 의식; 규칙과 질서)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경제현실과 경제이론·경제학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은 한 사회 내에서 지배적인 경제체제와 경제학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규정성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출발한 사회주의경제학이, 자유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이 지배적이다. 사회주의경제학과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은 각각 자신이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이론에 적합한 경제현실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이념과 경제교육의 차원에서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려고 한다. 또한 경제체제가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지배적 경제학 역시 안정적인 변화만을 겪을 뿐이다.

분단의 역사가 이미 반세기를 넘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완전히 이질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해오면서, 경제체제의 원리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는 경제학 이론체제에서도 완전히 상이한 구조를 형성해 놓았다. 북한의 경제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유일체제에 적합한 사회주의명령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주체의 경

---

이 되었다가 다시 약화되는 다면적이고 불연속적인 과정을 겪는다. 이런 의미에서 개별 경제이론은 변화하는 현실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고 현실을 설명해 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경제학은 실증과학인 것이다.

제관리이론'이라는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다. 반면 시장기구와 국가경제 계획의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한 남한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이 달성된 이후부터 시장기구와 개별 경제인의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이 지배적인 경제이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학 체계간의 차이는 각각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이질화의 정도를 심화시켜 왔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경제위기에 따른 체제불안정의 심화와 남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는 남북한 세력불균형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는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남한의 주도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체제와 경제학간의 상호규정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남북한 경제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가 우리 경제학계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남북한 경제이론의 차이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현상적으로 쉽게 인정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학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남북한 경제이론체계 자체의 비교를 통해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학의 이론체계가 현실과 관련된 몇몇 실증명제의 구조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명제와 이념·사상·정책원리·분석방법·분석도구의 총체적 결합체라고 할 때 그리고 경제이론체계가 경제현실(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는 이론적 외피(보호막)와 고정적이고 견고한 기본원리(중핵)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때,<sup>2)</sup> 남북한 경제학의 차이는 좀더 조심스럽게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경제체제와 경제이론의 내적 연관성과 남북한 경제체제의 극단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과학

2) 경제이론체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경제학실사에 대한 J. A. Schumpeter와 I. Lakatos의 관점을 빌은 것이다.

이론의 특수성과 경제현상의 보편적 성격으로 인하여 남북한 경제학의 차이는 예상과는 달리 미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경제학의 차이를 경제학 이론체계 전반에 걸쳐 그리고 경제이론의 실질적 내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 논문은 남북한 경제학의 개념적 정의, 형식적 구조(분류체계)와 연구경향을 개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학 체계 전반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비교연구를 위한 출발점과 남북한 경제학 체계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데 고려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려고 할 뿐이다.<sup>3)</sup>

## II. 남북한 경제학의 정의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국가이념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정치경제학 체계를 당-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적 근대국가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경제이론을 체계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지배적 사회담론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학은 당-국가가 제시하는 정형화된 이론체계를 띠고 있으며, 경제이론의 전체상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된 경제문헌에 따라 파악될 수 있다. 북한은 1985년에 발간된 「경제사전」에서 경제학을 “사람들의 물질경제생활의 역사적인 발전단계에서 사회경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교체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사회의 다양한 경제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며 물질적부의 생

3) 북한의 경제학과 관련한 부분은 박순성, “북한의 경제학 체계 개관,” 「동아연구」, (1997년 제33집)를 참조하였다.

산과 리용에서 요구되는 실천적방안들의 작성을 자기의 기능과 과업으로 하는 과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sup> 특히 경제학의 과학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사전」은 경제학이 경제생활의 합법칙성과 실천적 원리를 밝힌다는 점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하나의 과학체계를 이룬다"<sup>5)</sup>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경제학은 인문·사회과학의 다른 모든 분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교육과정과 일반학술활동에서는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형화된 경제학 체계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sup>6)</sup>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의 전체상은 일반대학에 개설된 경제학원론 혹은 경제학개론 등의 강좌에서 이용되는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sup>7)</sup> 대부분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는 경제학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에 앞서 경제의 기본문제 혹은 경제문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요약해 보면, 경제문제는 인간이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물질적 욕망을 달성하려는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선택행위와 관련된 문제 혹은 선택될 행위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화된 어법에 의하면, 경제문제란 경제주체가 희소성의 법칙<sup>8)</sup>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1985), pp.116~7. 북한은 경제사전을 1970년에도 출판하였다. 이하에서 1985년 판 「경제사전 1」은 「경제사전(1985) 1」로, 1970년 판 「경제사전 1」은 「경제사전(1975) 1」로 표기한다.

5) 「경제사전(1985) 1」 p.117. 이 점에서 경제학은 "일명 경제과학이라고도 한다." 「경제사전(1985) 1」, p.116.

6) 한국경제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개괄적 연구로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1991) 참조. 특히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이 한국에서 자리잡게 된 정치사회적·이념적 배경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25~30 참조.

7) 현재 대학교재용으로 발간된 '경제학원론'류는 필자가 접한 것만도 이십 여종에 이른다. 필자는 그 중에서 일반대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순·정운찬(법문사, 1992), 김균·이만우·이학용(태진출판사, 1995), 임양택(박영사, 1991), 김윤환(대명출판사, 1982)을 활용하였다.

8) '희소성의 법칙'이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고자 하는 무한한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인 자원은 상대적으로 유한한" 상태를 규정하는 개념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자원배분문제이다. 따라서 경제학이란 '제한된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sup>9)</sup> 혹은 '희소성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탐구하는 학문'<sup>10)</sup>으로 정의된다.

이제 남북한의 경제학에 대한 정의를 검토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학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학의 정의와 관련해 경제학이 경제생활 혹은 경제문제와 관련된 학문이라는 내용에 주목해 보자. 먼저 북한의 경제학은 사회의 물질경제생활 혹은 물질적 부의 생산·이용과 관련된 학문이라 규정된다. 「경제사전(1985) 1」에 인용된 김정일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분야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투쟁하며 그 결과에 얻어진 생산물을 분배하고 교환하며 소비한다. 이러한 경제생활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간다.”<sup>11)</sup> 이처럼 경제를 물질적 수요충족을 위한 인간들의 자연정복·개조와 같은 생산활동 및 생산물의 분배·교환·소비활동으로 파악하는 북한 경제학의 관점은 고전과정치경제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인간들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비판의 전통이나 희소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효용충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의 관점으로부터 다소 벗어난다.<sup>12)</sup> 그런데

---

이다. 김균·이만우·이학용, 「경제학원론」, p.5.

9)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p.9.

10) 김균·이만우·이학용, 「경제학원론」, pp.5~6. “이처럼 욕망에 비해 이용가능한 여러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경제문제의 본질이 있고, 이들 수단을 어떻게 가장 중요한 용도에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일어난다.” 김운환, 「경제학원론」, pp.9~10.

11) 「경제사전(1985) 1」, p.116.

12) 비록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사람’이 경제주체로서 갖는 지위와 ‘사회’의 생산관계와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또는 계급의 이해관계’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의 중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놓여 있다.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 :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22~3 참조.

자유주의근대경제학에 따르면 희소성의 법칙이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며, 모든 사회의 공통된 경제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생산과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배분이다.<sup>13)</sup> 비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복과 개조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 않고 또한 희소성법칙과 효용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자유주의근대경제학도 경제문제의 핵심을 제한된 자원으로 표현된 자연과 이를 이용하여 욕망을 충족하는 인간의 관계로 파악한다.<sup>14)</sup> 그리고 이는 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으로 귀착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경제학과 남한의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은 경제행위를 자연이라는 외부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 생산·분배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체제의 특수성을 사상하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경제이론을 전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학은 동일한 특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학이 강조하고 있는 역사적 발전단계의 존재와 개별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제도의 형성·발전·교체의 합법칙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 역사적 발전단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은 북한 경제학이 경제이론의 초역사성을 부정하고 인간들의 경제활동을 경제제도라는 사회틀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경제제도의 역사적 변화를 중시함으로

13) “미국의 경제학자 사뮤엘슨에 의하면 모든 사회에 공통된 경제문제는 다음과 같다. (i)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즉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ii)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선택가능한 자원과 기술 중에서 어떤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iii)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와 용역, 즉 생산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김근·이만우·이학용, 「경제학원론」, p.4.

14) 물론 경제학에 대한 정의에서 물질적 복지의 생산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정의(materialist definition)와 최소한 자원의 배분을 중시하는 희소성 정의(scarcity definition)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경제학원론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제학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는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김윤환, 「경제학원론」, p.18; 김수행 외, 「경제학개론」(비봉출판사, 1992), pp.5~13 참조.

써 스스로를 넓은 의미의 역사학문으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제도가 경제행위자들의 경제활동을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제학은 '사회 없는 개인' 혹은 '사회 이전의 개인'을 상정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경제학은 자유주의 근대경제학보다 좀더 역사성을 지닌 사회과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들도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간의 이해대립에 의해 나타나는 갈등과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sup>15)</sup> 경제체제론을 경제이론의 중요한 분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학원론의 이론적 기본골격은 시장기구에 기초한 자원의 배분문제를 경제학 전 체계의 기본문제로 다룸으로써 스스로 경제이론의 한계를 설정하고, 경제학의 역사성과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만다. 사실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의 이러한 한계는 경제학이 로빈스(L. Robbins)에 따라 "주어진 목적과 희소한 수단간의 관계에 대한 인간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될 때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하겠다.<sup>17)</sup> 그런데, 남한의 경제학에 비교할 때 좀더 역사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이론의 구축과정에서 성격이 변모하고 만다. 사실 주체이념에 기초한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주체의 사회주의사회(경제체제)에서 계급이 소멸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념적 구호가 실현

15) 김윤환, 「경제학원론」, pp.18~20;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pp.3~7. 특히, 조순·정운찬에 따르면, "경제학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경제질서를 만들어 내는가를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질서와 제도가 어떻게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제약하는가를 알려주는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p.7)

16)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제14편; 김윤환, 「경제학원론」, 제1편 제4장; 임양택, 「경제학원론」, 제1편 제1장, 제8편 참조.

17) 김근·이만우·이학용, 「경제학원론」, p.6.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전파되는 경제이론에서 역사성과 사회제도는 사라지고 오직 무계급성에 기초한 경제계획원리만이 유일체제를 위해 남도록 한다. 결국 이에 따라 북한 경제학은 시장기구를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근대경제학보다 오히려 더 몰역사적이고 더 추상적인 지배담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경제체제의 특수성을 사상하고 경제생활의 보편적 성질을 강조하는 경향과 일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서 갖는 실천적 측면에 대해 검토해 보자. 북한의 경제학은 이론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학이 발견해 내는 경제생활의 합법칙성이 경제활동의 실천적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학문의 실천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는 남한의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도 대부분 강조되고 있으며,<sup>18)</sup> 이러한 태도는 사회과학의 근본 성격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학의 현실은 경제학에 대한 당위론적 주장에 비해 실천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먼저 북한 경제학의 경우를 보면, 실천성이 강조되면서 현실(정치와 이념)에 의한 이론(경제)의 제약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이론과 현실간의 거리가 무시됨으로써, 경제이론은 자체의 내재적 발전가능성을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내재적 발전가능성을 상실한 북한의 경제학은 경직된 이념 하에서 낡은 이론에 집착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잃고 만다. 결국 북한 경제학은 경제학 외부에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제시되는 실천강령에 의해 규제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이론체제로, 나아가 지배이

18) 경제학의 실천성과 실용성에 대한 논의는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pp.23~24; 김유환, 「경제학원론」, p.22 참조.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은 경제학의 실천성·실용성을 경제학이 규범과학으로서 지나야 하는 특성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다. 김유환, 「경제학원론」, p.22; 김균·이만우·이학용, 「경제학원론」, pp.25~27 참조. 이러한 논의는 규범성과 실천성간의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규범성과 실천성은 상호연관되어 있으나, 규범성이 반드시 실천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실천성은 규범성에 이론의 현실성 내지는 실현방안이 덧붙여지는 경우에 나타난다.

테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예측적 ‘과학이론’으로 전락하고 만다.<sup>19)</sup> 한편 남한의 경제학도 대부분의 자유주의근대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실천성보다는 경제이론의 내적 정합성과 이론구성을 강조하는 순수경제학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sup>20)</sup> 사실 이러한 현실을 역으로 반영하여 일부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은 경제학의 실천성과 실용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 경제학은 경제학과 경제체제의 밀접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 대한 개념적 정의 자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개념정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정의와 관련한 남북한 경제학의 추상적·형식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은 경제이론의 현실적 내용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학은 물역사적·비현실적으로 변모하면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라는 지배담론으로 변질되는 반면, 남한의 경제학은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가상의 순수시장기구 하에서 보여줄 경제행위에 대한 가설연역적인 순수경제이론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 이는 북한의 경제학 문헌들이 한결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적’에서 출발하고, 그들의 ‘강령적 교시’를 조합하는 담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20)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이 순수경제학으로 발전하는 경향의 근저에는 가설연역적 방법이라는 근대경제학 이론구성의 특수한 성격이 놓여 있다. 경제이론의 가설연역적 방법론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균·이만우·이학용, 「경제학원론」, pp.23~25 참조. 이현재에 따르면, 경제학은 ‘현상적인 본질성’보다는 ‘추론상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현재, “경제학의 발전과정과 이론체계,” 박재윤 외, 「경제학연구입문」(비봉출판사, 1981), p.6.

21) 최근 남한의 경제학계에서는 경제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경제학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고전파 정치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학 내지는 법경제학에 대한 강조가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남북한 경제학의 분류

남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의 분류체계는 남북한이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연구대상과 연구목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남한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는 경제학의 분류를 한 절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저서들이 제시하는 경제학의 분류는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라는 두 체계이다.<sup>22)</sup> 때로는 경제학의 분석방법에 따라, 정태경제학과 동태경제학이 구분되기도 하고, 새로운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분과로 수리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이 특별히 거론되기도 한다.<sup>23)</sup> 경제학의 분류를 좀더 큰 틀에서 파악하여, 경제학이 경제사, 경제이론(협의의 경제학), 경제정책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경제학원론도 있다.<sup>24)</sup>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학의 분류체계를 기술경제학(경제사, 경제통계), 이론경제학(경제이론), 응용경제학(경제정책, 경제계획)으로 나눈 후, 이론경제학을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일반경제이론(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과 경제분석을 특정부문 또는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재정학, 화폐금융론, 경기변동론, 경제성장론, 경제발전론, 국제경제학, 농업경제학, 노동경제학, 경제사회학, 산업경제학, 지역경제학, 도시경제학, 관리경제학 등)로 나누는 경제학자도 있다.<sup>25)</sup> 한편, 경제학의 전공별 분류를 빌어 경제학 분

22) 전형적인 예로는 김관·이만우·이학용, 「경제학원론」, pp.25~27;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pp.18~21 참조.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이론·생산자이론·산업조직론·시장이론·분배이론·일반균형이론과 국민소득결정이론·화폐금융론·경제정책론·경제성장론·경제체제론·국제경제론이다.

23) 임양택, 「경제학원론」, p.16.

24) 김윤환, 「경제학원론」, pp.35~39.

25) 이현재, “경제학의 발전과정과 이론체계,” pp.8~9. 경제사회학은 노동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노동경제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관리경제학은 경제분석을 개별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이론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슈페터에 따르면, 경제분석의 형태는 경제사(Economic History), 통계학(Statistics), 이론(Theory),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 정치경제학 혹은 경제정책(Political

류체계를 살펴볼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JEL(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분류방식을 남한의 경제학계에 맞추어 분류한 방식에 따르면, 경제학은 일반경제학·일반경제이론, 경제사상사·방법론, 경제사, 경제체제, 경제성장, 계량경제(수리경제 및 통계 포함), 화폐금융, 재정학, 국제금융, 국제무역, 경영(기업이론 및 회계학 포함), 산업조직(기술경제학 포함), 농업경제(경제지리 포함), 노동경제(인구경제학, 인적자본 포함), 복지(소비경제학, 도시경제학, 지역경제학 포함) 등의 분과로 구분된다.<sup>26)</sup>

북한의 경우, 경제학 분과의 분류체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학 분류와 연관시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제학 분과의 세분화와 발생을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른 경제학의 실천적 응용의 결과로 파악하고,<sup>27)</sup> 나아가 개별 경제과학 분과들의 관계를 분화의 측면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상호침투하고 보충하면서 경제과학의 통일적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sup>28)</sup> 북한은 경제학의 분과를 우선적으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반경제학, 전문경제학, 부문경제학으로 구분한다. 경제과학의 일반학이요 기초학이라 불리는 일반경제학은 경제과정 전반 또는 경제구조 전체를 다루는 학문분과로서, 정치경제학, 인민경제사, 경제학설사가 여기에 속한다.<sup>29)</sup> 전문경제학과 부문경제

---

Economy), 응용분과(Applied Fields)로 나뉜다.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p.12~24.

- 26)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1991), pp.56~57, p.115 참조.  
 27) 「경제사전」에 따르면, 역사학문의 성격을 지닌 경제학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생활의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실천적 의지에 기초한 의식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하나의 단일한 경제학으로부터 오늘의 세분된 여러 과학분과들로 이루어진 경제과학으로의 발전은 사회적생산력의 발전,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의 심화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리해가 확립되게 되었다.” 「경제사전(1985) 1」, p.117.  
 28) “대개 경제학은 자기의 고유한 대상과 방법을 가지면서도 호상침투하고 호상보충하면서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경제사전(1985) 1」, p.117. 남한의 경우에도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상호보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원론 저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학은 각각 정치경제학의 명제에 기초하여 총체적 경제과정의 일정한 측면이나 특수한 내용만을 다루거나(일반에 대한 특수의 관계로서 전문경제학 : 경제통계학, 부기계산학, 경영활동분석 그리고 재정, 화폐유통, 가격학, 노동경제학, 인민경제계획화, 경제수학적방법<sup>30)</sup> 등), 특수한 영역 또는 부문만을 다룬다(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로서 부문경제학 : 공업경제학, 농업경제학, 건설경제학, 운수경제학, 상업경제학, 무역경제학<sup>31)</sup> 등). 또한 경제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는 북한은 객관적 경제법칙을 다루면서 경제실천에 원리를 제공하는 기초경제학(자본주의이전 정치경제학, 자본주의정치경제학, 사회주의정치경제학 등)과 “부문적인 또는 국부적인 과업의 해결, 구체적인 경제적 기준과 과업의 설정, 경제적조종의 개선완성과 관련된 대책들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실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복무”하는 응용경제학(경영학, 재정학, 노동경제학 등)으로 구분한다.<sup>32)</sup> 북한에서 제시하는 기초경제학/응용경제학 구분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경제학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경제학이 지배이데올로기를 담는 사회담론으로, 정책·실용과학의 성격을 띤 응용경제

29) 북한은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모든 경제과학들, 개별경제학들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가 된다”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경제사전(1970) 1』, p.99.

30) 엄밀하게 본다면, 경제수학은 ‘취급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과정의 일정한 측면 또는 특수한 면만을 본다는 기준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경제수학의 경우에는 방법론적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방법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특수한 측면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수학을 전문경제학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1) 부문경제학의 각 분과는 내부에서 다시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공업경제학은 전력공업경제학, 석탄공업경제학, 기계제작공업경제학, 방직공업경제학으로, 농업경제학은 농산경제학, 축산경제학, 산림경제학으로 분화된다. 『경제사전(1970) 1』, p.99.

32) 『경제사전(1985)』, p.118.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은 ‘일반원리를 다루는 과학’과 ‘실천적 수단을 제시하는 기술’이라는 두 극단적인 개념 및 ‘전체적·포괄적 이론’과 ‘부분적·실천적 이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사회경제제도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합리적·효과적 경영방법과 실천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이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경제학을 무시한 응용경제학은 경험주의에 빠지거나 경제전반에 손실을 줄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학이 과학이론보다는 경제활동의 실무지침서와 같은 형식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현재 북한의 경제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과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다.<sup>33)</sup> 북한의 경제학 분류체계에서 보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작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칙과 범주를 다루는 일반경제학으로 전문경제학과 부문경제학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응용경제학의 출발점이 될 이론적 내용들을 제시하는 기초경제학이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은 정치경제학 방법론,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방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과도적 특성, 사회주의노동이론, 생산·분배·유통·소비이론, 사회주의적 재생산론 등이다. 응용경제학에 해당하는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전문경제학 분야에 속하는 경영학의 일반원리와 함께 부문경제학에 해당하는 공업경영학과 농업경영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 기본원칙, 경제관리체계, 경제관리방법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남북한 경제학의 분류체계를 비교할 때 유의할 만한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남한 경제학에서 강조되는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구분은 북한 경제학 분류에서는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 경제학의 경우 이미 경제학 자체의 실천성과 이념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남한 경제학에서 제시된 이론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의 구분은 북한 경제학에서 제시되는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의 구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단, 북한 경제학의 경우 기초경제학인

33) 두 분과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저서로는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한득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2 : 사회주의경제의 기본분야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박영근·김철제·리해원·김하룡, 「주체의 경제관리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이다.

정치경제학의 이념성이 좀더 강조된다고 하는 측면과 응용경제학들이 경제이론보다는 실무지침이나 기술교재의 성격을 좀더 지닌다는 측면이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학 분류에서 볼 때, 남한에서는 경기변동론·국제경제학·국제무역·국제금융·복지경제학·소비경제학 등이, 북한에서는 '주체의 경제관리론'이라는 경영학 부문이 두드러진다. 이는 남북한 경제체제와 경제성장정책의 차이(자유자본주의경제체제·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정책과 명령형 사회주의계획경제·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를 반영하는 것이다.

#### IV. 남북한 경제학의 동향

남북한 경제학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한 분야는 경제학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는 경제학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경제학 체계를 세우려고 한 국가이다. 더욱이 남북한은 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국민국가 수립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이론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학의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양 사회에서 경제학이 갖는 의미와 위치를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차 남북한 경제학간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 경제학의 연구동향은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경제학연구」와 「The Kore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된 논문의 전공별 구성비가 보여주는 변화추세 및 경제학계 일반에서 발표된 논문의 분야별 구성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

&lt;표 1&gt; 「경제학연구」와 KER 게재 논문의 전공별 구성비 변화

분류	53-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5	전시기	KER 85-89
일반경제학	5	4	2	4	5	8	9	47	84	8
일반경제이론	14.3	16.0	6.7	10.5	13.5	12.5	14.5	24.1	17.4	11.9
경제사상사 방법론	5	0	0	1	2	0	2	10	20	1
	14.3	0	0	2.6	5.4	0	3.2	5.1	4.1	1.5
경제사	7	4	6	8	11	6	2	5	49	0
	20.0	16.0	20.0	21.1	29.7	9.4	3.2	2.6	10.1	0
경제체제	0	2	0	1	0	1	3	11	18	0
	0	8.0	0	2.6	0	1.6	4.8	5.6	3.7	0
경제성장	3	2	5	2	3	12	11	11	49	1
	8.6	8.0	16.7	5.3	8.1	18.8	17.7	5.6	10.1	1.5
계량경제	4	0	1	2	2	4	3	4	20	7
	11.4	0	3.3	5.3	5.4	6.3	4.8	2.1	4.1	10.4
화폐금융	2	1	1	2	1	1	1	10	19	8
	5.7	4.0	3.3	5.3	2.7	1.6	1.6	5.1	3.9	11.9
재정학	0	2	1	0	3	1	4	9	20	5
	0	8.0	3.3	0	8.1	1.6	6.5	4.6	4.1	7.5
국제금융	0	0	0	1	1	2	4	8	16	10
	0	0	0	2.6	2.7	3.1	6.5	4.1	3.3	14.9
국제무역	2	0	2	3	0	3	4	19	33	6
	5.7	0	6.7	7.9	0	4.7	6.5	9.7	6.8	9.0
경영	0	3	3	0	1	5	3	4	19	5
	0	12.0	10.0	0	2.7	7.8	4.8	2.1	3.9	7.5
산업조직	1	1	4	3	1	9	5	18	42	4
	2.9	4.0	13.3	7.9	2.7	14.1	8.1	9.2	8.6	6.0
농업경제	3	3	4	6	3	3	2	7	31	0
	8.6	12.0	13.3	15.8	8.1	4.7	3.2	3.6	6.4	0
노동경제	2	2	1	1	1	6	7	23	43	7
	5.7	8.0	3.3	2.6	2.7	9.4	11.3	11.8	8.8	10.4
복지	1	1	0	4	3	3	2	9	23	5
	2.9	4.0	0	10.5	8.1	4.7	3.2	4.6	4.7	7.5
합계	35	25	30	38	37	64	62	195	486	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p.112; 「경제학연구」 제38집 1호 (1990.6)~제43집 3호(1995.12)

&lt;표 2&gt; 경제학계 일반 기간별·분야별 경제학 논문구성(1971-1985)

	1971-75	1976-80	1981-85
일반경제	386 / 17.3	312 / 16.4	437 / 15.1
경제성장	242 / 10.9	241 / 12.7	379 / 13.1
계량경제	94 / 4.2	95 / 5.0	189 / 6.6
화폐·재정	105 / 4.7	109 / 5.7	306 / 10.6
국제경제	468 / 21.0	295 / 15.5	559 / 19.4
산업조직	109 / 4.9	188 / 9.9	357 / 12.4
농업	339 / 15.0	339 / 17.8	323 / 11.2
노동	325 / 14.6	174 / 9.1	198 / 6.9
복지	161 / 7.2	150 / 7.9	137 / 4.7
계	2,229 / 100	1,903 / 100	2,885 / 100

\* 출처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p.62.

\* 원자료 : 강명규, “한국경제학의 성장구조 -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논집」(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제26권 제4호(1987)

위의 두 표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에서 발표된 경제학 논문의 주제별 변화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연구동향을 확인해 보자. 첫째, 경제사상사·방법론·경제사·경영·농업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논문의 비율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국제금융·산업경제·노동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논문의 비율은 비교적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경제가 산업화·국제화되면서 경제학의 관심이 경제학 자체나 경제사보다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현상과 경제문제에 더 많이 기울어져 왔음을 보여준다.<sup>34)</sup> 또한 이는 경제학계의 발전에 따라 경제학의 전문분야에 대한 관

34) 이는 한국경제학회에 소속된 경제학자들의 전공분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경제

심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경영에 대한 논문이 1970년대에 줄어든 것은 경제학과 경영학간의 학문적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내 준다.<sup>35)</sup> 둘째,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논문의 구성비가, 1980년대부터는 계량경제·화폐금융·재정학·국제금융·국제무역 등과 관련된 논문의 구성비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계량경제·화폐금융·재정학·국제금융·국제무역 분야 논문의 증대현상은 KER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현상은 KER 자체의 발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학계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수가 증대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sup>36)</sup> 셋째, 위의 표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경제학에서 수리적 기법과 계량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논문의 비율이 각각 197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고 있다.<sup>37)</sup> 넷째, 최근 특기할 만한 사실로는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경제, 남북경제교류, 동북아경제, 통일 이후 경제체제 등에 관한 논문이 「경제학연구」에 10편 가량 실렸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도 북한경제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38)</sup>

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pp.118~119.

- 35) 한국경제학회의 전공별 회원구성비를 보면, 경영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2년 17.8%에서 1963년 12.2%로 하락한 후, 1980년대 초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p.119.
- 36) 미국의 한국인 경제학박사 배출수는 1972년 이후 꾸준히 증대하다가, 1988년 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원 중 최중학위취득국가가 미국인 경제학자의 비율이 34.5%로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p.100.
- 37) 방정식 5개 이상을 사용한 논문의 비율은 「경제학연구」의 경우 1970~74년 21.1%에서 1975~79년 24.3%, 1980~84년 37.5%를 증가하였으며, KER에서는 71.6%에 달한다. 한편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비율은 「경제학연구」의 경우 1965~69년 처음으로 16.7%를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하며, KER에서는 56.7%를 기록하였다.
- 38) 전통적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정치학에서 주로 나타났다. 경제학에서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경제학연구」 제43집 1호(1995.7)에 북한경제, 통일경제, 남북경제교류를 다루는 특집논문이 3편 실렸다는 사실이다. 한편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 내 비주류경제학의 변화동향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p.72 참조.

한편 북한 경제학의 경우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약 50년이란 기간동안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변화의 내용은 경제학의 연구대상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학 분과들에 대한 관심 증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변화는 김일성 저작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들,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설들, 1970년과 1985년에 각각 편찬된 「경제사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논설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경제학 연구대상의 변화를 보여주고,<sup>39)</sup> 「경제사전」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경제학 이론영역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논설의 주제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계획 및 경제건설 일반에 대한 논문·논설이 꾸준히 증가한다.<sup>40)</sup> 특히,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한 논문·논설이 늘어난다. 이 점은 북한의 경제학이 주체 사상의 강조와 함께 이론적 측면보다는 이념적·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1964년 김일성의 “우리나라 농촌문제에 관한 태제”가 발표됨에 따라 70년대까지 농업문제에 관한 연구가 북한에서 활발하였으나, 80년대 이후 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감소하고 있다.<sup>41)</sup> 셋째, 80년대 이후부터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공업 및 지방공업에 대한 논문·논설이 증대하며, 이 사실은 북한 인민생활이 궁핍해짐에 따라 당의 관심이 인민생활에 점

39) 이 부분은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7)와 이교덕,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 「근로자」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를 참조하였다.

40) 1970년대 김일성 저작에서 경제계획·경제통계로 분류되는 주제의 빈도가 떨어지지만, 1970년대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김정일의 저작 중 이 시기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 10편 중 8편이 경제건설 일반 및 당의 경제에 대한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향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12) 참조.

41) 1985년 이후 김일성 저작에서 농업에 관한 강조가 증가하는 것은 북한의 식량문제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저작집」 39~44권 참조.

차 집중됨을 보여준다. 넷째, 국내의 상업·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고 있으나,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은 80년대부터 급속도로 증가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80년대부터 대외개방(외자유치 및 지역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sup>42)</sup>

북한이 1970년과 1985년 두 번에 걸쳐 편찬한 「경제사전」은 경제학 이론영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경제사전(1970)」에 표제어로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수학적 모형, 경제수학적 모형화, 경제수학적 방법, 선형계획법, 수리계획법, 수리통계학, 수리학파, 수리운영학 등의 용어들이 「경제사전(1985)」에 등장한다. 이는 한편으로 계획의 과학화·단일화를 강조하는 북한 지도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경제학에서 경제수학 혹은 수리적 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1980년대부터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밑에는 경제학에 대한 북한 경제학자들과 북한 지도부의 태도변화가 분명 깔려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사전(1970)」의 '경제통계학' 항목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고 생산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계학의 새로운 한 부문으로 (경제통계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르조야변호론자들이 말하는 <경제통계학>이란 <수리경제학> 또는 <수리통계학>의 한 분과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현상을 수학공식에 맞추거나 수학의 경제분야에의 적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는데 복무하고 있다"고 수리적 방법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sup>43)</sup> 그러나, 「경제사전(1985)」에 '경제통계학' 대신에 표제어로 올라있는 '수리통계학' 항목에서는 "수리통계학이 지난 시기 사건들의 경과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외부적조건이나 내부적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연구하려는 현

42) 경제학 전문잡지인 「경제연구」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대외무역에 대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43) 「경제사전(1970)」 1권, pp.96~97.

상이 앞으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하는것을 내다볼수 있게 한다는것은 경제실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수리통계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sup>44)</sup> 또한 수리적 방법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경제학 전문잡지인 「경제연구」에서도 1990년대부터 관련 논문들이 등장한다.<sup>45)</sup> 둘째, 경영학 일반과 경영조종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는데, 이는 북한에서 기업소 관리의 과학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로자」에서 경영활동개선에 대한 논설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증대한 것도 이러한 경향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경제수학, 수리적 방법, 경영학 일반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북한에서 점차적으로 경제이론이 가진 중립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유추해 본다면, 이념과 정책 사이에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던 경제이론이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의 침체와 함께 북한 지도부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학의 연구동향을 비교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체제와 경제성장단계의 차이가 경제학의 연구동향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대한 남북한 공통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본주의체제를 취한 남한의 경우 연구의 중점은 국제무역·국제금융·노동경제 등으로 점

44) 「경제사전(1985)」 2권, p.93. 경제학에 있어서 수학적 방법이나 수리적 방법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수리운영학’, ‘경제수학적모형화’, ‘경제수학적방법’ 등의 항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5) 김용철, “경제수학적방법에 의한 생산계획작성은 경영활동의 과학화, 합리화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1990년 제4호; 윤재창, “경제수학적방법의 리용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과학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1991년 제3호; 한철, “경제과정의 특성과 수학적방법,” 「경제연구」 1991년 제4호; 리학주, “경제동태 모형화방법과 그 역할,” 「경제연구」 1992년 제3호; 태광용, “경제수학적방법의 리용은 생산력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참조.

차 이동하였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경제계획과 당지도가 연구대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경제의 침체와 인민생활조건의 악화에 따라 경공업·지방공업·농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최근 다시 높아졌다. 둘째, 경제학 방법내지는 새로운 연구분과와 관련하여 남북한 모두 수리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심증대의 시차는 약 20여년이 난다. 이는 남한 경제학계의 빠른 발전과 경제학의 수리적·계량적 방법에 대한 북한 경제학계의 늦었지만 실제적인 태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수리적·계량적 분석도구가 남북한 경제학에서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점은 경제학에서 이념과 이론의 구분이 모호하던 상태가 점차 극복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남북한간에 경제분석도구 내지는 이론적 방법에서 접근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다. 셋째, 북한 경제학이 최근 대외경제·경제개방·시장경제원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이는 남북한 경제학의 학술교류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한다.

## V. 남북한 경제학의 동질화 가능성

지금까지 남북한 경제학을 이론 자체의 내용·논리전개·분석방법보다는 경제학에 대한 개념정의·분류체계·연구동향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남북한 경제학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한 경제학은 형식적·구조적 차원에서 본다면 극단적 차이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남북한 경제학이 구체적이고 내용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차이점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서로 다른 두 이론체계간에 비교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남북한 경제학의 형식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와 이론목적의 차이는 남북한 경제학의 논리체계와 언어구조를 상이하게 만들고, 이론체계간의 비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sup>46)</sup>

남북한 경제학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학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라면 그리고 남북한 경제학간에는 구체적·내용적 차원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면, 과연 남북한 경제학간에 존재하는 형식적·구조적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이를 남북한 경제학의 동질화를 위한 기본 방향이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정리해 보자.

우선 지적할 점은 경제학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남북한간에는 추상적 차원의 동질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학은 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부딪칠 경제문제와 경제생활의 변화에 대해 공동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은 통일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남북한 경제학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목표와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 단계가 지나면, 남북한 경제학은 남북한 지역경제의 통합(체제통합·구조통합), 북한지역 경제재건 및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을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체제론과 경제성장론에 대한 관심을 함께 확대해 갈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남

46) 이는 서로 다른 체계들(문화, 정치, 이론, 심리 등)간의 비교를 시도하는 이론가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비교분석에서의 이론적 난관이다.

북한이 20세기 세계사의 경험으로부터 공동의 교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이 현재 체제개방과 시장경제기구 도입 그리고 시장경제원리학습을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이는 남북한 경제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학의 실용적·실천적 측면과 연결될 수 있다. 비록 경제학의 실용성·실천성에 대한 강조가 당위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경제학은 통일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실용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학문적 접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적이고 실무적인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학은 점차 이론적인 교류를 도모해 나가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은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북한의 산업구조조정(농업·경공업의 낙후성 극복; 북한의 산업연관분석 지원 등)과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경제와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경제학은 체제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북한이 새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제학 분야(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기술경제학, 정보화, 과학적 경영, 국제무역론 등)는 경제체제의 차이와 어느 정도 간격을 둘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학의 새롭고 진보된 분석도구와 방법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배울 수 있도록 남한의 경제학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이 자유자본주의체제를 바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한의 경제학계는 북한 주민의 경제체제적응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체제적응에 대한 교육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일반교육과 함께 학교

교육·전문가교육 등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는 교육 교재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별 경제이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재가 과거의 교육에서 강조되었던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남북한 경제학의 내용적·구체적 비교연구와 관련되며, 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학계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